시끌벅적 e-스타

하루종일 소주와 사는 '소주녀' 아시나요?

'소주녀'가 인터넷에서 화제다.

네티즌들의 무더기 클릭 세례를 받고 있는 2분 30초짜리 '소주녀' 동영상은 한 여성이 아침부터 밤에 잠이 들 때까지 소주와 함께 생활 한다는 내용.

지난해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주녀 하루'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뒤 최근 인기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키면서 네티즌들이 이곳저곳으로 퍼나르고 있다.

동영상에 나오는 20대로 보이는 여성의 소주 사랑은 엽기적이다.

예컨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물 대신 소주를 마시고, 콘 프레이크도 소주에 말아먹는다. 양치질한 뒤에 입을 헹구는 것도 소주로 하고 옷에 향수 대신 뿌리는 것도 소주다.

지하철과 학교 강의실에서 책을 보면서도 빨대로 소주를 마신다. 잔디밭에서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면서도,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도 소주가 음료수 대신이다. 친구들과 술자리에서는 2천CC 맥주잔에 소주를 들이 붓고 마신다.

집에 돌아온 뒤 팩을 하면서도 소주에 적신 '소주팩'을 한다.

엽기적 동영상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재미 있다""기발하다""정말일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영상에 나오는 소주 브랜드 때문에 일부에서는 회사측에서 홍보를 위해 제작한 것 아니냐는 네티즌도 많다.

하지만 진로측은 이와 관련, "홍보 수단으로 동영상을 제작,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엄앵란의 사랑과 결혼

㊻ 첫 데이트에서 대화에 성공하는 법

상대방 쳐다보면서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자

훌륭한 대화는 눈과 귀의 접촉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기술이다. 상대방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주의깊게 귀를 기울이자.

이것은 효과적인 대화를 위한 기본조건이다. 남녀간의 대화라고 해서 보통 사람들간의 대화와 비결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아무튼 훌륭한 대화를 하기 위한 비결은 다른 사람을 우리 곁으로 가까이 다가오게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나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화의 포인트라 할 수 있다. 다음의 몇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첫 데이트에서 당신은 성공적인 대화로 상대와 설레이는 다음 번 만남을 계획할 수 있을 것이다.

1.먼저 자신을 정확하게 소개하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OOO입니다"라고 명확히 자신을 먼저 표현하는 자신감이 당당한 매력을 준다.

2.대화에 도움이 되는 간결하고 부드러운 손동작을 사용하자.

3.상대의 이름을 기억해 대화 중 간간이 불러주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예의이다.

4.말을 할 때는 상대방과 정확히 눈을 마주치자. 물론 상대방이 말할 때에도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자.

5.눈을 마주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에 대한 신뢰 또는 상대방의 말에 대해 가치를 부여한다는 깊은 뜻이 있다.

6.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 또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자

7.적극적으로 말하자. 우리가 일하면서, 생활하면서 얻는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표정을 보면 상대는 모두 우리와 친해지고 싶어할 것이다.

8.상대가 말할 때 편안한 기분을 느끼며 믿고 마음속 얘기까지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듣자.

9.상대방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 자기에게 상대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심어주자. 지금은 상대의 일과 고민, 문제점들이 최대의 관심사인 것으로 한다면 따스하고 믿음직한 대화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10.상대의 말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확신을 주자. 상대방이 한 말을 우리 자신의 당어로 반복하면서 확실히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상대는 우리의 노력에 고마워하고 감동할 것이다.

11.약속 시간은 꼭 지키자. 지각은 '이 일 또는 이 상대는 나에게 중요치 않다'는 생각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피치 못해 늦는다면 이유와 도착 시각을 미리 정확히 밝히자.

12.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자.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와 무엇이 다른지를 알고 받아들이려 애쓰자.

그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정보회사 닥스클럽
(www.daksclub.com)
문의 : 1588-6665
〈닥스클럽(주) 대표컨설턴트〉

뉴스퀴즈

51. 한류 스타를 위협, 일본 공연을 강요한 혐의(강요미수)로 서방파 옛 두목 김태촌씨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측은 "김태촌씨가 수차례 자기 이름을 밝히고 권씨를 위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보도되면서 인터넷에서는 이 한류 스타를 격려하는 글이 수없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 한류 스타는 누구일까요.

①권상우 ②배용준 ③류시원 ④이병헌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15일(음 12월 27일 庚辰)

子 36년생 주변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48년생 자녀 직업으로 인해서 고역이 보인다. 60년생 무리수를 하더라도 과감하게 진행하라. 72년생 남의 말로 손재가 우려된다. 84년생 제사가 지체되고 결과도 늦어진다. 행운의 숫자 : 22, 39

丑 37년생 비정한 고충이 측근에서 발생될 우려가 있다. 49년생 모든 일이 침체나 종래는 안정하게 자리한다. 61년생 평상일을 집중하라. 73년생 친구 친척 간에 좋은 일이 발생한다. 85년생 침착하게 서행하라. 행운의 숫자 : 15,16

寅 38년생 새 문서가 눈물 낸다. 50년생 과욕과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좋으리라. 62년생 제사가 순조롭게 신생되며 자유롭게 진행한다. 74년생 예기치 못한 역습이니 손실은 있으나 걱정은 없다. 행운의 숫자 : 21, 25

卯 39년생 增殖하는 형상과 같고 주변이 잘 되면서도 어수선하다. 51년생 주변으로부터 새로운 길사가 가속화 된다. 63년생 결과가 의중처럼 좋은 하루다. 75년생 융합할 듯한 주변이 대고를 발생시킨다. 행운의 숫자 : 05, 37

辰 40년생 仲人이 나타나서 결말을 내놓는다. 52년생 가정과 配人의 불편사가 발생할 수 있고 사기가 걱정된다. 64년생 부부사이에 얼굴 붉힐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7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롭고 평탄하게 진행한다. 행운의 숫자 : 08, 34

巳 41년생 여유로운 하루로다. 53년생 부부사이를 이간질 할 가까운 사람이 나온다. 65년생 이해있는 선감이 필요하고 부부간 절대 믿고 대화해야 하리라. 77년생 침체 속에 실리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7, 40

午 42년생 적극적인 사고로 행동하고 뛰어라. 54년생 중인의 잘못으로 그 책임이 나에게 전가되는 형상이다. 66년생 사기꾼이 달려든다. 주변을 정리하라. 78년생 내 것 잃고 속상한다. 행운의 숫자 : 18, 43

未 43년생 가내가 시끄럽다 인자함을 보여주라. 55년생 전화위복이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리로다. 67년생 애인과 이성교재가 있을 수도 있다. 79년생 특별한 협조자와 좋은 인연을 맺을 수다. 행운의 숫자 : 1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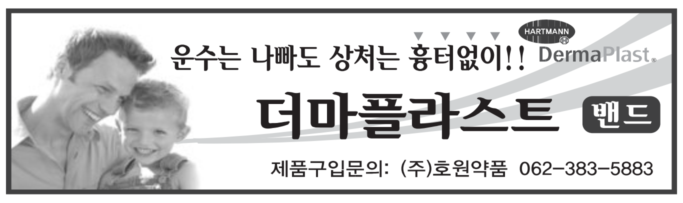
申 44년생 부부사이에 새로운 사랑이 신생한다. 56년생 신념과 중도를 살려가며 매사에 관용을 생각하라. 68년생 실물 사기 도난의 손재수가 있으니 조심하며 지내라. 80년생 밝은 웃음으로 주변을 웃긴다. 행운의 숫자 : 06, 42

酉 45년생 큰 덕은 자선을 베푸는 데에 있다. 57년생 발전을 약속하고 가속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는다. 69년생 돌발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라. 81년생 욕심을 버려라. 과욕하면 결과는 대 손해로 연결된다. 행운의 숫자 : 13, 28

戌 46년생 용호상박이니 결과는 반반이다. 58년생 하루를 조심조심 보내라. 사방이 소란하다. 70년생 시비 송사 구설 분쟁이 발생 될 우려가 있다. 82년생 과욕만큼 잃을 수 있는 손재수니 베풀면 득이 온다. 행운의 숫자 : 24, 41

亥 47년생 시비가 생겨도 자신에게 기운다. 59년생 조금만 노력하면 성사 될 수 있으니 행동해야 하리로다. 71년생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니 선택을 숙고하라. 83년생 매사에 조심을 다해도 불만스럽게 꼬일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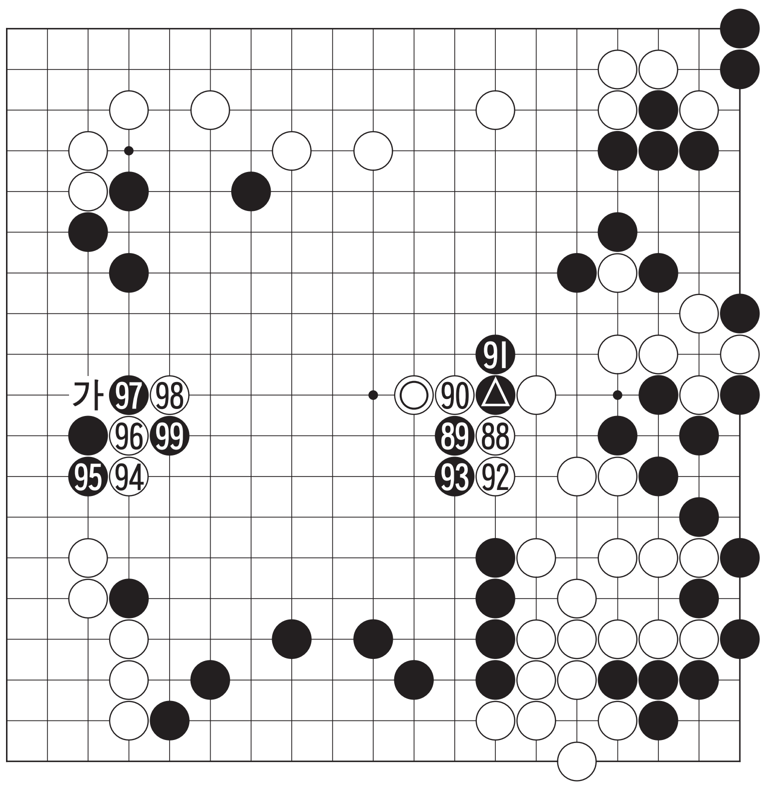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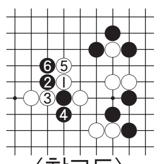


제1회 광주시 교육감배 바둑대회 중등부결승전

상상을 초월한 강수 7보(88~99)

白 윤용희 〈비아중 1〉 黑 권재구 〈문성중 1〉





〈참고도〉

흑 ▲가 권재구군의 승부기질을 극명하게 드러낸 강력한 태클이다. 초반 우변에서 크게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시비를 걸어가지 않으면 형세를 만회하기가 힘들다는 계산이다.

상대가 막상 이렇게까지 덤벼오자 백도 성가시게 되었다. 애초에 백 ◎로 두칸 뛴것은 90에 한칸만 뛰어야 안전했다.

윤용희군은 일단 88로 젖혀 92까지를 교환한 다음 '어려우면 손빼라'는 격언대로 94로 발걸음을 돌린다. 시의적절한 판단이다.

백 88로 '참고도'의 1로 위쪽에서 젖히면 역시 6까지 되어 더 좋지 않다. 흑 97로 젖히고 백도 98로 젖혀 왔을 때 여기에서 또 권재구군은 99로 우지끈 뚝딱하고 다짜고짜 끊어버렸다.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수다. 과연 이 수가 약이 될것인가 독이 될 것인가. 권군의 승부수가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장면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RA 한국마사회

바둑소식

목진석, 바둑왕전 2회전 진출

목진석 9단과 원성진 7단이 지난 12일 열린 제26기 KBS바둑왕전에서 각각 박영훈 9단과 허영호 5단을 누르고 2회전에 진출했다.

박영훈 9단에 1승8패로 절대열세였던 목진석 9단은 이날 228수 끝에 백 불계승을 거뒀다.

목진석 9단은 올들어 13승 1패를 기록, 다승·승률 부문 1위에 올라 있다.

올해 8승3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원성진 7단도 허영호 5단을 164수 끝에 백 불계로 따돌리고 상승세를 이었다.

원성진 7단은 조한승 9단과 2회전에서 격돌한다. 이 대회 우승상금은 2천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842>

Don't get me wrong

제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A:John is going to sing tonight.
B:Oh, my God!
A:Don't you like his singing?
B:It's not that. **Don't get me wrong.**
A:What's the problem then?
B:He only knows one song!

A:존이 오늘밤 노래를 부를 거랍니다.
B:아이쿠, 맙소사!
A:당신은 그가 노래하는 걸 싫으세요?
B:그게 아니에요. **제 뜻을 오해하지 마세요.**
A:그럼 왜 그래요?
B:그는 한 곡 밖에 부를 줄 모르거든요!

Don't get me wrong
= Don't take this the wrong way
= Don't misunderstood (me)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842>

就職先(しゅうしょくさき)探してみてから

취직자리 좀 알아보고

A:卒業(そつぎょう)してすぐアメリカにいくの?
B:いや、**就職先(しゅうしょくさき)探(さが)してみてから。**
A:いいとこなかったら行くの?
B:まだよくわからない。

A:졸업하고 바로 미국 갈 거야?
B:아니, **취직자리 좀 알아보고**
A:좋은데 없으면 갈 거야?
B:아직 모르겠어.

卒業(そつぎょう) : 졸업
就職先(しゅうしょくさき) : 취직자리
探(さが)す : 찾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3>

我已经是贵公司的职员了

저는 이미 귀사의 직원입니다

A : [illegible]
B : [illegible]
zhēndema xièxie
A : [illegible]
B : [illegible]

A : [illegible]
B : [illegible]
A : [illegible]
B : [illegible] 저는 이미 귀사의 직원입니다.

[illegible] (miànshì) 면접
[illegible] (bàng) [illegible]
[illegible] (hétong) 계약서
[illegible]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460>

彌縫策 (미봉책)

꿰멜 미, 꿰멜 봉, 꾀 책

미봉책(彌縫策)은 실로 꿰매는 방책이라는 뜻으로, 빈 곳이나 잘못된 것을 일시적인 임기웅변책이나 눈가림으로 넘기려는 술책을 말한다.

춘추·전국시대는 천자의 나라인 주(周)나라 왕실이 쇠락하고 제후들이 강성하던 시대이다. 주나라 환왕(桓王)은 정나라 장공(莊公)이 조공을 중지하자 이를 빌미로 정나라를 정벌하여 기세등등한 장공을 꺾으려 하였다. 환왕이 쳐들어오자 장공은 '어려지진(魚麗之陣)'으로 맞섰다. '어려지진'은 물고기가 늘어서듯 전차(戰車)와 보병(步兵)을 일렬로 늘어서는 진법이다. 먼저 전차를 앞세우고 뒤에다가 보병을 세우는데, 이 보병의 대오가 마치 전차 사이를 '실로 꿰메듯이 이어주는' 것이었다. 이 작전으로 장공은 대승을 거두었고,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결정적으로 무너졌다.

이 이야기에서의 '미봉'은 부족한 점을 일시적으로 보완하는 긍정적인 술책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신의 잘못을 눈가림식으로 은폐하는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505